


제10회 사회교리주간 강론자료
2020.12.6(주일)-12(토)

2020년 11월

 **진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전화 02-727-2431, 773-1050 팩스 02-773-1051

<http://social.catholic.or.kr>

□ 제10회 사회교리주간 강론자료

1. 대림 제2주일(12월 6일, 인권주일, 사회교리주간)

(제1독서:이사야서 40,1-5.9-11 / 제2독서:베드로2서 3,8-14 / 복음:마르코 1,1-8)

제목 : “형제들과 함께 주님의 길로”

주제어 : 모든 형제들, 주님의 길

+ 찬미 예수님

지난 10월 4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새로운 회칙으로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을 발표하셨습니다.

회칙은 전 세계 가톨릭교회와 신자들에게 보내는 교황님의 공식적인 편지로 하느님의 가르침을 오늘날 사회문제에 비추어서 신자들이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번 회칙에서 교황님은 코로나19 팬더믹을 통해서 무능한 정치와 시장 자본주의의 실패를 확인했다면서 인류애를 중심에 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교황님은 뜻밖에도 터진 팬더믹 위기는 정치와 경제 제도를 개혁해서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당신의 믿음을 더욱 강화해주었다고 하시면서 세계적 보건 위기는 마술처럼 여겨졌던 시장 자본주의의 실패를 증명했고 모든 것이 시장 자본주의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세계로의 개방이 국경을 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용된 것을 예로 드시면서, 세계화는 우리를 이웃으로 만들었지만, 형제로 만들어주진 않았고, 개인의 이익만 강조하고 공공의 삶을 약화시키는 세상에서 그 어느 때보다 외롭다고 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정치지도자들이 극단주의를 정치 수단으로 악용하는 세태도 지적하셨는데 건전한 논쟁보다는 과장과 극단주의, 양극화가 정치적 도구로서 번지르르한 마케팅 기법으로 전략해 버렸고, 정치가 가난한 이들을 더 큰 가난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새로운 삶을 위한 원칙으로 인류애를 제시하셨는데, 형제애와 가족애, 타인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삶이 종종 비웃음을 살지라도 선의와 사랑으로 함께 하는 삶, 정의와 연대는 한 번에 성취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매일 실현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대림 제2주일이자 인권 주일이면서 사회 교리 주간을 시작하면서 나나 내가 아는 사람 또는 지역만 괜찮으면 다른 사람이나 지역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지역의 도움은 필요 없으니 나나 내가 사는 지역에도 간섭하지 말라는 개인주의에서도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마르코 복음의 시작으로 주님의 길을 내야 하는 세례자 요한의 사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로는 주님의 길을 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삶,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내야 하겠습니다.

2. 대립 제2주간 월요일(12월 7일) 성 암브로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제1독서:이사야서 35,1-10 / 복음:루카 5,17-26)

제목 : “대립에서 일치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 위기, 그리고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및 9월 평양 공동선언 파기.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의 입주민 갑질로 인한 사망 사건.

백인 경찰에 목이 눌러 숨진 흑인 피해자와 그로 인한 인종차별에 관한 갈등.

지금 언급한 사건들은 2020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대립’이라는 주제로 구분되는 사건들입니다. 물론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기본이고 남성과 여성의 대립에 의한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대립하고 집단과 집단이 서로 대립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미 바벨탑 사건(창세,11)을 통해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일치는 고사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립의 현상을 종용하거나 이용하고 유지하려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 현상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개인의 이기심과 욕심, 그리고 집단의 독점욕 때문입니다. 모든 개인과 집단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갈 때 인간으로서의 온전함을 서로 이룰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이기심과 욕심 그리고 독점욕을 버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지봉의 기와를 벗기고 평상에 누인 중풍 병자를 예수님 앞에 들여다 놓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중풍 병자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를 평상에 누여 옮긴 바로 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 병자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낫게 해주십니다. 한 인간이나 집단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상황과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도와주려고 할 때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풍 병자가 누워있는 평상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들여다 놓은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고통만 바라

보는 것을 뛰어넘어 중풍 병자의 고통과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를 도울 수 있었고 결국 죄의 용서와 육신의 치유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류와 하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시는 성부와 성령 안에서 개인이나 집단적 이기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립을 뛰어넘어 일치와 연대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부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아시고 성자께서 성부를 아신다”고 하신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나와 너의 기본적인 차이를 알고 서로가 살아온 환경과 살아온 방식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그것을 알아가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서로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사회교리주관을 맞아 자신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선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도록 합시다.

3. 대림 제2주간 화요일(12월 8일)

한국천주교회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제1독서:창세기 3,9-15.20 / 제2독서:에페소서 1,3-6.11-12 / 복음:루카 1,26-38)

제목 :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주제어 : 약함, 두려움, 믿음, 용기, 응답과 일어섬. 의탁하고 기도함

오늘은 한국천주교회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성모님을 떠올리며 많은 영감(靈感)과 은총,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중에서도 두 가지를 묵상해봅니다. 바로 ‘두려움 속에서의 믿음’과 ‘약함 속에서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 무엇을 생각합니까?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 구세주 탄생예고, 하느님의 영광이라는 아름답고도 찬란한 장면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소녀에 불과한 마리아가 겪을 극심한 두려움도 동시에 보입니다. 분명 마리아는 두려움과 약함을 체험합니다. 귀족도, 사제도, 율법학자도 아니요, 부유하지도 않고 남자도, 어른도 아니었던 다만 어리고 가난했던 마리아는 동정잉태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루카 1,38). 마리아는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청원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선택했고, 약함 안에서 응답이 이루어졌고 더 큰 하느님의 약속이 이제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1년간 우리는 참담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과 약함을 체험했습니다. 모든 모임과 만남은 차단되고 경제위기, 실업과 해고, 생계곤란, 궁핍함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자괴감, 무력감과 우울함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감염병 사태는 세상과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저마다 혈뜯고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은 외면되고, 나만 잘 살아남으면 된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를 반성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가족, 신앙, 인생과 사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돌아볼 기회도 얻었지만 현실 속에서 그 대가는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팬더믹 이전으로의 회귀가 불가능할 거란 전망을 접하는 것도 참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서 희망과 사랑, 믿음과 응답마저도 앗아간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많은 신앙 선조들은 불굴의 희망과 빼앗길 수 없는 사랑을 고백해왔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사도 바오로(로마 8,35)의 말씀과, 굳센 믿음과 시련마저도 인내와 믿음을 위한 기회로 삼으라는 야고보 사도(야고 1,1-2)의 말씀,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허둥대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베드로 사도(베드로 1,3,17)의 말씀까지 실로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이분들은 모두 오늘 가브리엘 천사의 신비로운 계시를 체험했습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루카 1,37). 당시 유대교 율법상 미혼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불과 15세 전후의 나이였던 소녀 마리아의 행동은 대단히 용기 있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영웅적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소녀 마리아처럼 용기 있는 행동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새삼, 우리 사회의 어려움 중 하나는 우리가 내적이면서 영적인 힘, 그리고 인내와 절제, 자비와 용기와 같은 덕을 키우지 못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물과 소비, 쾌락과 욕심, 이윤과 자본만을 추구한 결과이자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의 사회를 만든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루카 12,20). 우리는 너무 자주 펜을 잡고 책상 앞에서 무엇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의심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마태 14,31) 여전히 조건과 현실이 갖추어져야만 행복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하느님 앞에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숨어있는 것인지 성찰해봐야 합니다.(참조, 창세 3,10-11) 그리고 소녀 마리아의 위대한 응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작은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서로 함께 힘을 내어 기도해야 합니다. 의지를 갖고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선행을 실천하고 영적인 힘을 키웁시다. 신앙을 회복합시다. 깊이 성찰하면서, 우리의 삶과 세상이 복음을 통해 변화되길 간절히 지향합시다. 이를 위해 힘 쏟읍시다. 그것이 우리를 평화와 희망의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모님의 축복을 청합시다. 아멘.

4. 대림 제2주간 수요일(12월 9일)

(제1독서:이사야서 40,25-31 / 복음:마태오 11,28-30)

제목 : “구원으로 함께 가는 이웃”

주제어 : 이웃, 연대, 형제애, 십자가

+ 찬미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당신의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대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자신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초대는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그 고통을 없애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이겨낼 힘을, 그 고통을 이겨낼 방법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우리의 인생에서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짐을 질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짐을 거부하고 벗어버리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의 몸에 맞게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짐이라고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 어려움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세상 창조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웃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짐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위한 하느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네 이웃을 너 자신 처럼 사랑해야 한다.”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신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도, 공생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주신 것도 모두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형제애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세

상을 살아가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멩에를 메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다면, 우리는 이웃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주는 하느님의 선물로 다가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웃을 버려야 할 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버릴 수 없는 십자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대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은총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5. 대림 제2주간 목요일(12월 10일)

(제1독서:이사야서 41,13-20 / 복음:마태오 11,11-15)

제목 : “하늘나라는 여전히 폭행을 당하고 있다”

주제어 : 폭행, 폭력

폭행...그리고 폭력...

폭행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행은 분노의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평화로운 상황에서는 결코 폭행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폭행은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합니다. 또한 폭행은 언어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물리적으로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분노의 상황에서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언어나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간에 나타나는 폭행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폭력을 가하는 주체가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폭력을 당하는 약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가해지는 폭력은 삶의 희망을 빼앗고, 짓밟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많은 예언자들도,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도 그 당시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한 폭행과 폭력으로 삶을 일찍 마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듯 지금도 폭행과 폭력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강한 힘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상대방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폭력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은 생각보다 아주 쉽게, 우리 주변에서 가깝게,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부모

가 자녀에게,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식당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장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국가가 국민에게,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결국 우리들 각자는 언제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폭력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힘을 사용할 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힘은 약한 사람을 제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힘은 나쁘게 쓰면 폭력이 되는 것이고, 좋게 쓰면 사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약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에 사용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6. 대림 제2주간 금요일(12월 11일)

(제1독서:이사야서 48,17-19 / 복음:마태오 11,16-19)

제목 :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

주제어 : 애덕 실천과 나눔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습니다.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은 더욱 큰 고통을 겪게 되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러한 삶의 가장 뚜렷한 표징은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불평불만이 없고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은 늘 웃고 기쁘게 나눕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는 하느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그 안에 희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삶이 고되고 어려움이 가득하다고 여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 안에 마음을 쓰고 욕심을 부리게 되며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쉽게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도움만을 바라며 늘 악의 유혹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세례자 요한을 예언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아들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나무라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예언자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세례자 요한을 깎아내립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머물면서 회개와 극기의 삶을 살았는데도 이를 본 유대인들은 그를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가난한 이들과 죄인들을 초대해 그들과 어울리며 먹고 마시자 이것 또한 시비를 겁니다. 예수는 먹보요, 술꾼이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아냥거리

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모두 하느님의 뜻과 사랑을 전하는 삶을 보여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색안경을 끼고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판단하였고 스스로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고 구원의 말씀을 거부하고 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세례자 요한이 보여줬던 회개와 희생의 삶,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앞장서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진정한 벗이 되어야 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이들을 위해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이러한 애덕 실천과 나눔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복음화를 이룰 수 있으며 무너져 가는 신앙의 기틀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초라한 구유에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모습에서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며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7. 대림 제2주간 토요일(12월 12일, 사회교리주간 마지막 날)

(제1독서: 집회서 48,1-4.9-11 / 복음: 마태오 17,10-13)

제목 : 예언자적 삶을 살자 - “우리의 출발점은 항상 사람이다”

주제어 : 예언자적 삶, 인격성, 연대성, 공동선, 보조성, 참여, 재화의 보편적 목적,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배려

오늘은 사회교리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독서인 집회서는 이스라엘의 대예언자인 엘리야에 대해 “당신은 정해진 때를 대비하여 주님의 분노가 터지기 전에 그것을 진정시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되돌리며 야곱의 지파들을 재건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집회서 48,10)라고 말하면서, 예언자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복음인 마태오 복음서에서, “율법 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라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언급을 통해, 세례자 요한이 구세주(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마지막 예언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림시기는 우리에게 2가지 의미를 묵상하게 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탄생을 통해 세상에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고대하며 주님의 삶을 따라 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상에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삶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언급된 엘리야와 세례자 요한처럼 말입니다.

특히 대림시기에 사회교리주간을 보내는 의미 또한, 우리를 예언자적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사회교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으로부터 출발¹⁾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서로 연대²⁾하며 살고, 모

두의 공동선³⁾을 위하여 함께 일하도록 요청받기에, 이것은 서로의 처지를 존중하고 서로의 재능을 장려함으로써 가능⁴⁾하고, 또한 모든 사람이 저마다 사회에 참여⁵⁾하여 그와 같은 일을 실천하도록 촉구하고 격려할 때 그것이 더욱 원활해지기에, 지상 재화⁶⁾는 만민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그것을 공유할 수 있으며 또 마땅히 그래야 하기에, 그럼에도 역시 삶의 윤택함을 위하여 우리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⁷⁾을 가져야 합니다. 8)

세상에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참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다짐해 봅니다. 그래서 더이상 사회교리주간이 없어도 되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 1) “인격성의 원리: 우리의 출발점은 항상 사람이다.”
 - 2) “연대성의 원리: 인간답게 산다는 의미는 연대를 통하여 존재한다는 것이지 이웃으로부터 고립된 존재로 산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 3) “공동선의 원리: 진실로 인간답게 산다는 의미는 만민의 공동선을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다.”
 - 4) “보조성의 원리: 우리는 서로의 재능과 삶을 처지 그리고 타고난 가능성을 존중함으로써 이 원리를 실천한다. 인간답게 산다는 의미는 이웃으로 하여금 그들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케 하는 것이다.”
 - 5) “참여의 원리: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삶의 사회적 차원에서-특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에서-스스로 투신하도록 하고 또 그것을 촉구함으로써 이 원리를 실천한다.”
 - 6) “재화의 보편적 목적: 하느님께서 소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지상의 재화들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 7)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가장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항상 배려하여야 한다. 약자들을 보살핌으로써 모든 이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자의 이익을 배려하는 일은 우리의 동물적 본성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8) 도요한, 가톨릭사회교리, 103~105 인용, 가톨릭출판사, 2011.